

大學教育과 職業教育

姜 在 太
(慶尙大 社會學科 助教授)

종래의 大學教育은 學問中心의 이었다. 그러나 學問中心의 理念만으로는 변화하는 産業社會의 要求에 적응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大學教育은 學問中心의 傳統과 職業教育의 原理를 어떻게 슬기롭게 調和시키는가에 그 성패가 좌우된다 할 수 있다.

I. 머리말

역사적으로 개관해 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 또는 職業과 學問은 정반대의 意味를 내포해 왔다. 즉 일이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삶에서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슬픔이라고 인식되었기에 노예와 같은 하찮은 人間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반면에 공부 또는 學問은 眞理나 美를 추구하는 價値 있는 일이기에 고상한 사람들만이 독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일과 學問과의 대칭적인 관점이 가장 잘 반영되었던 곳이 大學이었다. 즉 전통적으로 大學은 學問 중에서도 가장 최고 수준의 學問을 추구하는 곳이기에, 大學과 일 또는 職業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완고한 태도를 보여 왔다.¹⁾

그러나 오늘날 民主主義를 정치와 사회의 계도적 理想으로서 삼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大學

을 과거처럼 소수의 특정 계층의 사람들의 知的 滿足을 충족시키는 장소로서 국한시킬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産業社會에서는 어떤 專門의 職業知識이나 技術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生存하기조차도 어렵게 되고 있다.

이에 따라 世界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최근에 들어 大學教育과 職業教育의 연관성을 찾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美國의 大學에서는 1970년대 초기 生涯教育²⁾의 概念이 도입된 이래,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변화하는 産業社會의 要求에 보다 더 적응하는 大學教育의 理念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우리 나라의 大學은 과거의 學問 中心의 사고 속에 안주한 채, 이런 시대적인 조류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美國의 大學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職業教育의 理論이 변천하여 왔으며, 현재 그 실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 나라 大學教育의 새로운 理念定立에 참고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

II. 美國 大學理念의 歷史的 變遷

美國에서의 大學은 1636년 Harvard大學의 창설과, 곧 뒤이어 William and Mary College가 1693년에, Yale College가 1701년에 출범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당시의 大學의 理念은 英國型의 모방이라고 할 수 있다. 英國式 大學의 理念은 職業準備의인 것이 아니라 ‘고귀한 質의 崇拜(the cult of quality)’인 보편적인 知識에 의한 人間養成에 있었다.³⁾

그 당시 大學의 또 다른 특색은, 대부분 宗教團體를 기초로 하여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私立의 宗教團體를 기초로 하여 설립되었기에 大學의 入學生은 소수의 선택된 엘리트에 국한되었으며, 目標 역시 牧師準備生이나 法律家 등의 社會的 指導者의 養成에 있었다.

이런 초기의 大學教育의 理念은 1776년 美國이 英國으로부터 獨立할 때를 즈음하여 새로운 變化를 가져 오게 되었다. Fite(1973)⁴⁾는 美國 大學教育의 理念에 변화를 가져 오게 된 이유를 다음의 들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獨立을 즈음하여 美國 社會에는 民主主義가 정착되었다. 教育에서의 民主主義는 教育機會의 확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래의 少數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하던 大學의 門戶는 확대되어야 하였다.

둘째는 熟練技術者의 부족이었다. 즉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후에 새로운 國家의 터전이 되는 産業發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이를 위한 知識과 技術을 갖춘 사람들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國家의 기간산업인 工業과 農業 등을 교육하는 大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社會的 條件의 變化에 따라 생겨난 것이 1862년에 제정·발포된 모릴법(Morrill Act)이다. 모릴법의 주요 골자는 農業과 工業分野를 가르치는 大學을 각 州에 하나 이상 설립하며, 그 維持를 위하여 國유지를 하사한다는 것이다.

모릴법의 결과 美國 大學에서는 처음으로 農業·工業 등 職業에 관련된 學科와 科目이 개

설되게 되었으며, 農民이나 勞動者의 자제들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學問中心 大學의 傳統性은 대학의 職業教育化에 끊임없는 저항을 하였다. 그 결과 세월이 흐름에 따라 州立大學 內部에서까지 職業과 관련을 가지는 教育을 이단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점점 초기의 創設者들의 設立理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경향은 제 1,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숙련직업인 또는 전문인에 대한 社會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었다. 더욱이 1957년 스푸트니크호 쇼크(Sputnik shock) 이후 美國 教育全般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을 때, 과거 教育의 모든 잘못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大學에서의 職業教育은 다시금 社會적인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 이유를 Hoyt(1979)⁵⁾는 다음의 셋으로 요약하였다.

첫째, 大學에 입학하는 대다수의 學生들은 고답적인 學問의 추구보다는 職業準備의 방법으로서의 教育을 필요로 한다.

둘째, 많은 학생들이 大學을 졸업하게 됨에 따라 大學 卒業生에 대한 社會적 價値가 저하되었다. 그 결과 大學 卒業生이라는 사실만으로서 就業를 어렵게 한다.

셋째, 高度로 발달된 産業社會에서는 일반 敎養的 知識보다는 專門職業的 知識이 보다 우대를 받게 된다.

이렇게 美國의 大學教育에 職業教育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었을 때, 人文主義 敎育者들은 마치 職業教育이 대학교육의 모든 측면을 담당하려는 것이라고 비난을 하였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마침 美國 敎育의 全般에 걸쳐 대두되고 있는 生涯教育(career education)의 물결에 힘입어서 大學教育에서의 職業教育의 위치는 보다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美國에서의 대학교육의 이념적 변천을 職業教育的 側面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다음 章에서는 이런 大學教育의 職業教育化 추세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人文大學과 師範大學의 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人文大學은 傳統的으로 職業教育化에 가장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반해, 師範大學은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둘을 대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人文大學教育과 職業教育

人文大學은 원래 知的 엘리트로 구성된 심오한 眞理를 探究하는 곳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人文大學의 특징은 현대에 오면서 먼저 엘리트 위주의 사고방식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Miller(1981)⁶²는 人文教育은 사회의 지배층이 그들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人文大學은 엘리트 中心의 인 사고는 많이 배제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學問이나 眞理探究의인 교육이념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은 人文大學도 보다 더 실제적인 생활과 연관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otstein(1976)⁷⁷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현재의 입학생들은

- ① 과거의 입학생들보다 더 현재 지향적이며,
- ② 과거의 입학생들보다 學問 中心의 教育에 긍지나 관심을 덜 느끼며,
- ③ 과거의 입학생들보다 職業的 成功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며,
- ④ 과거의 입학생들보다 人文大學의 教育이 장래의 직업과 구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적면하고 있는 人文大學들의 반응은 무척 다양하다. 어떤 인문대학들은 그들의 주임무는 教育에 있지 職業訓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인문대학들은 과거의 人文大學 卒業生들이 현재 높은 職業的 地位를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Amherst大學이 1971년 人文教育에 관계되는 모든 學科들을 폐파시킨 것처럼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Schuster(1978)⁸³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의 논쟁점은 專門 또는 職業教育이 大學에

서 필요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人文教育이 大學의 教育課程에서 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人文大學 教育과 職業教育과의 관계를 단순한 黑白論爭의 차원에서 파악할 수는 없다. 대신에 調和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즉 人文大學은 어떻게 하면 傳統的인 學問 中心의 사고를 職業社會의 요구와 슬기롭게 조화시키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Heckman(1973)⁸⁹이 지적한 것처럼, 人文大學이 職業教育의 이론을 도입한다면, 人文大의 순수한 성격에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종래의 지혜, 지식, 교양과 자아 인식 등에 대한 중요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포기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美國의 人文大學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教育的 變化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教育의 目標로서 生涯教育의 도입; 人文大學의 教育도 어떻게 하면 學生들이 職業을 잘 선택하여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의 선발이나 교육 및 졸업 후의 취업 보도 등의 모든 측면이 職業教育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生涯教育 資料室의 設置; 생애교육 자료를 학생들 및 교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生涯教育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生涯教育 資料室에서는 圖書館을 설치하여 生涯指導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담전문가들을 고용하여 학생들의 進路相談을 하게 한다. 進路相談의 예비적 준비로서 모든 學生들을 대상으로 하는 興味나 適性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여기서는 職業輔導도 담당하도록 한다.

(3) 現場經驗教育; 기대되는 교육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生産的인 작업현장에서 경험을 얻도록 교육을 계획하도록 한다. 1,2학년 學生들에게는 現場의 일을 단순히 관찰하게 교육을 계획하며, 3,4학년 學生들에게는 실제로 현장에서 職務를 수행하도록 계획을 해 본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졸업 직전이나 직후, 일정한

기간 동안 학교의 책임 아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4) 教授의 訓練; 아직도 人文大學의 職業教育化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많으므로, 教授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教授들의 訓練을 위하여서는 ① 生涯教育 資料室과 보다 많은 접촉을 하게 하고, ② 변화하는 産業社會의 요구와 人文大學 教育의 理念에 대한 論爭을 하게 하여 스스로 職業教育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③ 産業體나 産業體 人士들과 접촉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하며, ④ 職業教育을 담당하는 教授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한다.

(5) 教育內容; 人文大學의 教育內容을 産業體 人士들과의 협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 Doanne 대학에서는 다음의 교육내용을 추출하여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즉 ① 말과 글로써 의사전달하는 능력, ②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③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 ④ 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검증하는 능력, ⑤ 시행중인 과제를 완수하는 능력, ⑥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능력, ⑦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⑧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능력, ⑨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 ⑩ 확률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⑪ 과학이나 실업이나 이론의 성격을 이해하는 능력¹⁰⁾ 등이다.

IV. 師範大學教育과 職業教育

師範大學은 中等學校 教師를 養成하기 위한 학교이다. 美國의 師範大學은 師範學校(normal school)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師範學校는 순수한 教師養成의 기관이었기에 표면상으로는 職業教育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범학교에서의 教師教育은 교사교육의 세 가지 영역, 즉 敎養, 專門知識 및 敎職 중에서 전문지식에만 강조점을 두는 교육이었다. 즉 教師는 專門知識에 대한 깊은 理解만 가지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기본 가정하에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가르쳤기에 현대적 의미의 教師教育이라고 할 수 없었다. 따라서 一般大學에서 敎職科目에 대

한 기본적 소양도 없이 졸업한 學生들도 教師가 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師範學校 졸업생들보다 더 나은 배우를 받았다.

그러다가 19세기말경에는 프러시아의 Herbart의 敎授學(pedagogy) 중심 教師教育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 즉 美國의 교사교육도 專門敎科目 중심에서 탈피하여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 결과 大學에서도 교육학(education) 또는 교수학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하나의 학문분야로 인정, 학과를 개설하였고, 또한 독립된 師範大學(College of Education 혹은 Teacher's College)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본 美國의 師範大學의 특징은 처음부터 일반 고등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中等敎員養成을 위한 職業教育的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일반 대학교육이 目標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實利益을 추구하지 않거나 自由主義적인 것이 아니라 功利的이며 機能的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師範大學 教育은 英語·數學 같은 個別科目에의 보다 깊은 理解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一線의 教育現場과 유리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다. 즉 師範大學 教育은 '어떻게 가르치느냐(how to teach)' 보다는 '무엇을 가르치느냐(what to teach)'에 대해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師範大學 教育은 교사들의 質的 向上을 위한 教師訓練方法으로 '能力中心 教師教育(competency based teacher education 혹은 performance based teacher education)'을 도입하게 되었다.

能力中心 教育은 처음에 군대에서 중견기술자를 효율적으로 양성시키기 위한 훈련방법으로 시작되었는데, 能力(competency)의 수행(performance)에 강조점을 두는 교육방법이다.

能力中心 教育에서 강조하는 能力은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能力이란 개념과는 달리 '職業에서 成功하는 데 필요한 技能, 態度, 價値觀 및 知識'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能力中心 教育은 이런 '職業에서 필요한 能力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敎育'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能力中心 教育의 原理를 적용하는 能力中心 教師教育은 종래의 단순한 知識을 습득하게 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教師로서 필요한 能力을 가져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데서 그 意味를 찾을 수 있다.

Lanier와 Henderson(1973)¹¹⁾은 美國의 能力中心 教師教育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能力中心 教師教育의 핵심은 교사들이 직업의 현장에서 꼭 갖추어야 할 기술, 지식이나 태도 등에 있다. 따라서 教育課程을 구성할 때에는 職務(job)나 職業(occupation) 分析法 등을 이용한다.

(2) 學生들의 能力을 評價하기 위하여서는,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 學生行動(performance)과 學生들이 그 行動을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하에서 할 것인가 하는 條件(condition) 및 얼마나 잘해야 하는가의 基準(criteria)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教師教育의 評價目標은 주로 學生들이 學校現場에서 實務能力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데 두어진다.

(3) 學習者の 能力에 따라 학습의 진도를 조정한다. 따라서 個別化學習, 完全學習 및 모듈(module)식 수업 등을 중심으로 하여 수업을 구성하는 학습환경, 수업내용, 수업 보조자료 및 교수법 등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個別化된다.

(4) 教材는 학생들을 위한 學習目標, 學習內容과 活動을 제시한 學習資料(learning package)와 이러한 學習活動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과 學習評價를 위한 시험문제 등의 지침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學生들은 종래의 소극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이 되며, 스스로 學習速度를 조절할 수 있다.

V. 韓國의 大學教育에 주는 示唆

이상에서 美國의 大學教育의 理念상의 변천을 職業教育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으며, 師範大學과 人文大學에서 어떻게 職業教育化의 추세에 대처해 나가는가를 알아보았다.

물론 美國과 韓國의 현실적인 차이가 많기에 지금 美國에서 大學教育의 理念을 職業教育化

한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美國의 大學에서 職業教育에 관계되는 理念을 적용하게 되는 過程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나라도 美國이 겪었던 것처럼, 大學의 문호는 확대되었지만 많은 졸업생을 수용할 수 있는 社會的 與件이 되지 않아 教育받은 失業者(educated unemployment)가 양산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大學도 종래의 學問爲主의 사고에서 하루바삐 벗어나 産業社會的 要求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教育全般의인 문제가겠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人文崇尚의인 教育단을 강조하여 왔기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은 유리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그러나 대학을 위시한 모든 學校制度에서 職業教育的인 측면을 강화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産業의 국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서 師範大學의 경우를 들어 보자.

종래 우리 나라의 大學教育 중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師範大學 教育이 제대로 그 특징을 살려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범대학 교육은 敎師라는 職業人을 양성하기 위한 敎育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師範大學 敎育이 職業的인 면을 경시하게 되면, 저절로 專攻科目 위주의 敎育이 되며, 그 결과 은연중에 ‘專攻敎育+敎職敎育(敎育學)’은 師範大學 敎育이라는 등식을 가정하게 된다.

그러나 師範大學 敎育은 專攻敎育과 敎職敎育의 단순한 산술과 계산에서 도출될 수도 없으며 또한 도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사범대학 교육은 전공교육과 교직교육의 복잡한 화학적 반응에서 나타나는 결과이어야 한다. 따라서 師範大學 敎育에서 各科敎育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師範大學 敎育의 이런 學問的인 독특성은 사

범대학은 敎師라는 職業人을 양성하는 敎育기관이기 때문에 職業敎育의인 측면을 강화해 나가는 데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범대학 敎育의 敎育課程을 결정할 때 職業分析法으로 敎師가 일선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分析한다면 고도의 英文學的, 物理學的 또는 社會學的인 知識보다는 英語, 物理, 또는 社會의 기본적인 知識을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여, 英語 敎師 敎育은 Shakespeare 를 잘 아는 사람의 養成이 아니라 “I am a boy” 등 실제 學校의 現場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英語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가르치는 사람의 養成에 그 목표가 두어지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 나라의 大學에서 앞으로 職業敎育의인 특성을 많이 강조하여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증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의 職業敎育化는 종래 대학의 學問의인 특성을 일거에 버리고 職業準備的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學問中心 敎育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며, 人文大學, 師範大學, 工科大學, 自然科學大學 등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우리 大學의 理念은 어떻게 전통적인 대학 나름대로의 독특한 장점을 살려 나가는 범위내에서 産業社會가 요구하는 職業敎育의 원리를 잘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

<註>

1) 물론 서구사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들은 표면적으로는 의사, 변호사, 목사 등의 양성을 위해 운영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을 대학 敎育의 職業敎育화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직업인의 양성을 위한 敎育과정은 어디까지나 학문 중심적이었다. 또한 이런 직업들은 보통의 직업과는 차이를 달리하는, 그러기에 보

통의 직업이 가지는 부정적인 요소가 극히 없는 직업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 2) 生涯敎育(career education)은 인간의 전 생애를 일 또는 직업과의 관련에서 추구하는 敎育이다. 그러므로 생애敎育은 우리가 통상 학교수준에서 직업과의 관련을 추구하는 직업敎育을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 3) 초기 영국형의 보편적인 지식인 양성으로서의 敎育이념은 1876년 Johns Hopkins 대학 및 뒤이은 Chicago 대학 등이 독일식의 학문이나 지식의 추구로서의 이념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 4) Gilbert C. Fite, “Career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in Joel H. Magisos (ed.),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C.: The 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1973), pp.359-362.
- 5) Kenneth B. Hoyt, “Toward a Theoretical Career Development Process.” in Ed Watkins (ed.), *New Directions for Education and Work: Preparing Liberal Arts Student for Careers*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1979), pp.2-3.
- 6) Melvin D. Miller, “Early Values Underlying Vocational Education,” in Katy B. Greenwood (ed.), *Contemporary Challenges for Vocational Education* (Arlington: The 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1981), p.64.
- 7) Leon Botstein, “College Could be Worth It,” *Change*, December 1976, p.25.
- 8) Jack H. Schuster, “Liberal Learning, Vocationalism, and Institutional Coping Strategies,” in Lewis C. Solmon (ed.), *New Directions for Education and Work: Competency, Careers, and College*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1978), p. 50.
- 9) Phil Heckman, “From the President's Desk,” *Doane Magazine*, July 1973, p.3., from Ed Watkins, “Integrating the Life Development Concert Into the Curriculum” in Ed Watkins (ed.), *Op. Cit.*, p.51.
- 10) Ed Watkins, *Ibid.*, p.54.
- 11) Perry E. Lanier and Judith E. Henderson, “The Content and Process of Teacher Education: A Critique and a Challenge,” in Donald J. Mc Carty (ed.), *New Directions for Education: Preparing and Qualifying for Admission to Teaching*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1973), pp. 25-28.